

# 사상의학 병증론의 성립에 대한 고찰

김봉집\*

東武 李濟馬가 창안한 四象醫學은 기존의 醫學과는 다른 독창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중 하나로 <東醫壽世保元> 少陰人 泛論에서 “蓋有病者 明知其證則必不可不服藥이요. 無病者 雖明知其證 必不可服藥이라.” 하여 四象醫學에 生理的 證과 病理的 證이 있음을 말함으로써 病理現狀 중심의 辨證體를 가진 既存醫學과 다름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런 여러 차이로 인해 기존 證治醫學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四象醫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것 같다. 그러나 李濟馬의 四象醫學도 <醫源論>에서 “내가 醫藥經驗이 5-6千年이 지난 이후에 태어나서 前人之述로 인하여 우연히 四象人臟腑性理를 얻어 책을 지은 것이 <東醫壽世保元>이다.” 라고 밝혔듯이 既存醫學을 바탕으로 성립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에 이러한 四象醫學 특유의 病證論을 이해하는 한 방편으로 病證論이 어떻게 성립되었는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 1. 四象人 體質證과 體質病證의 성립과정

### (1) 東武公의 本體論的 認識方法

東武公은 <格致藁·反誠箴>에서 “太極을 心이라 하고 兩儀를 心身이라 하고 四象을 事心身物이라” 하여 그의 本體論的 入場을 說明하고 있다.

<周易>에서 四象의 의미는 八卦로 나누어지게 되는 中間者에 지나지 않지만 東武의 四象醫學에서는 더 이상 分化하지 않는 실체적 개념으로 事心身物을 제시하고 있어, 이는 宇宙의 構成的 要素, 發生變化的 要素, 自體 調和的 要素, 物象으로서의 表象的 要素를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表象的 要素를 갖고 있는 모든 物象現象은 事心身物로 歸納說明되고 있고 宇宙現象, 社會現象, 人體 生理現象을 說明하는데 있어서도 事心身物의 要約精神으로 說明되고 있다.

事心身物의 本體論的 立場에서 東武公은 宇宙의 四元構造를 天人性命으로 說明하고 있는데, 이는 다시 宇宙의 構成的 要素로서의 “事物”의 天和 “心身”의 人的 관계로 要約되고 宇宙의 現象的 要素로서 “事心”의 性和 “身物”의 命的 관계로 說明되고 있다. 社會現象의 四元構造도 慧覺인 仁義禮智(事)와 忠孝友悌(心)가 있고 資業인 士農工商(身)과 田宅邦國(物)이 있다고 보았다. 人體의 四元構造도 耳目鼻口(事)와 肺脾肝腎(心) 그리고 頭肩腰臀(身)과 臆臍腹(物)으로 나누어 說明하고 있다. (표 1-2)

그러나 事心身物이 單獨으로 獨立해서 存在할 수 없고 반드시 太極의 心和 兩儀인 心身이 합해서 裹氣가 되어 內面的으로 뒷받침이 있어야 四象人 事心身物이 表形이 되어 겉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생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각하는 것이 東武哲學의 本體論이다. (표 1-1)

특히 醫學의 측면에서 東武公의 本體論의 認識體系는 기존의 認識體系를 한 차원 높게 발전 시켰다. 먼저 人體의 外部 現象의 要素를 관찰하는데 있어, 단순히 陰陽論에 따른 既存醫學의 心身二分法的 認識에서, 事心身物의 四分法的 認識體系로 細分化하여 說明하고 이를 다시 事物과 心身, 또는 事心과 身物의 관계로 要約하였다. (이하 橫的 認識方法이라 한다.) 또 人體의 內部 臟理와 生理現象을 파악하는 認識體系에도 차이가 있다. 즉 內經의 氣裏形表정신이 氣와 形의 직접 대응관계인 二段階的 “氣裏形表”의 說明方法을 취하고 있다면, 李濟馬는 內經이 外形은 약간 얻었으나 臟理는 얻지 못하였음을 말하고 氣裏로서 太極心과 兩儀心身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타나는 形表가 四象(事心身物)이 되는 三段階的 “氣裏形表”의 說明方法으로 발전하였다. (이하 縱的 認識方法이라 한다.)

즉 太極의 心이 四象으로 직접 形化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兩儀인 心身の 도움을 받아 事心身物로 形化한다고 보았다. 이와같이 橫的 縱的 認識體系의 結合은 立體的인 形象辨證體系를 可能하게 만들어 어떠한 條件의 生理的, 病理的 現象이라도 分析 說明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本體論의 認識方法은 體質證과 體質病證의 辨證精神에 重要한 骨

格的 要素가 된다고 생각된다.

## (2) 四象人 體質證의 成立過程

東武公은 “나는 前人들이 지은 著述의 도움을 받아 우연히 四象人의 臟腑性理를 얻어 東醫壽世保元을 지을 수 있었다.”고 記述하였고, “〈靈樞〉에 太少陰陽五行人論이 있는데 外形은 簡略하게 얻고 있지만 臟理는 아직 얻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어 四象人의 臟腑性理(臟理)가 四象體質證을 決定하는 重要한 要因임을 말하고 있다.

本體論의 縱的 認識體系인 氣裏形表의 三段階的 說明방법을 引用하면 “形表”인 外形은 四象 즉 事心身物에 該當되고 “氣裏”인 臟腑性理는 太極 心과 兩儀 心身に 該當된다고 본다. 따라서 心을 太極에 대입하고 “人趨心慾”과 “人稟臟理”를 兩儀 心身に 代入해서 四象人의 臟腑性理를 完成시키고, 完成된 臟腑性理를 바탕으로 外形인 四象人의 “體形氣像, 容貌詞氣, 性質材幹”을 代入하면 四象人의 體質證이 成立되는 것이다. (표 2-1)

東武公은 本人이 말했듯이 “前人的 著述로 因하여 우연히 四象人의 臟腑性理를 얻었다.”고 하였는데, 특히 〈東醫寶鑑 集例〉에서 나타난 許浚의 生理的 辨證精神이 東武公의 縱的 認識體系와 完全 一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를 소개하면 “臣이

[表 1-1] 本體論의 認識

氣 裏		形 表
太極 (心)	兩儀 (心身)	四象 (事心身物)

[表 1-2] 事心身物 (形表)

	事	物	心	身
宇宙四元構造論	天 (物)		人 (己)	
	事	物	心	身
社會四元構造論	仁義禮智 (慧覺)	田宅邦國 (資業)	忠孝友悌 (慧覺)	士農工商 (資業)
人體四元構造論	耳目鼻口 (天)	頤臆臍腹 (知)	肺脾肝腎 (人)	頭肩腰腎 (行)

생각하건데 사람의 몸에는 안으로 五臟六腑가 있고 밖으로 筋骨肌肉血脈皮膚가 있어 그 形을 이루니 精氣神이 또한 臟腑百體의 主人이 된다."라고 하여 精氣神이 太極이 되고 五臟六腑가 兩儀가 되어 겉으로는 筋骨肌肉血脈皮膚가 外形이 된다고 說明하고 있어 東武公의 本體論의 認識方法과 같은 認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許浚의 生理的 辨證精神이 四象人의 體質證 成立過程에 직접 影響을 끼친 것을 알 수 있다. (표 2-1)

따라서 四象人 體質證의 成立은 本體論의 縱的 認識方法에서 그 說明이 가능했지만, 完成된 體質證의 辨證方法은 外部에 나타나고 있는 現象을 가

지고 辨證해야 하기 때문에 本體論의 橫的 認識方法이 필요한 것이다. (표 2-2)

東武公은 <四象人 辨證論>에서 體質證을 辨證하기 위해서 四象人의 體形氣像, 容貌詞氣, 性質材幹과 四象人의 恒心과 完實無病 條件을 提示하였는데, 이와 같이 橫的 認識方法을 통하여 現象을 把握하고 이를 이용하여 內的인 臟腑性理는 確認하는 것이 體質證이 辨證精神인 것이다. 이와 같이 橫的 認識方法과 縱的 認識方法은 辨證過程을 說明 할 수 있는 서로 補完關係의 認識方法임을 알 수 있다.

[表 2-1] 四象人 體質證의 成立過程

內經	氣裏		形表
	未得臟理		若得外形
許浚	精氣神	五臟六腑	頭面手足 筋脈骨肉
東武	心	人趨心慾 人稟臟理	體形氣像 容貌詞氣 材幹 性質
	太極	兩儀	四象

[表 2-2] 四象人 體質證의 完成

	氣裏		形表
	人趨心慾	人稟臟理	體形氣像
太陽人	棄禮而放縱者	肺大肝小	腦頓之起勢盛壯 腰圍之立勢孤弱
少陽人	棄智而飾私者	脾大腎小	胸襟之包勢盛壯 膀胱之坐勢孤弱
太陰人	棄仁而極慾者	肝大肺小	腰圍之立勢盛壯 腦頓之起勢孤弱
少陰人	棄義而偷逸者	腎大脾小	膀胱之坐勢盛壯 胸襟之包勢孤弱

### (3) 四象人의 體質病證의 成立過程

東武公은 <辨證論>에서 健康한 生理現象의 조건과 病理現象의 조건을 精神과 肉體的 立場에서 말하고 있다. 즉 健康한 生理的 조건으로는 四象人의 “恒心”과 “完實無病”을 말하고 있고, 이것이 깨져 病理條件이 되면 “恒心의 尤甚證”과 “大病”의 條件이 나타나고, 이보다 病이 더욱 惡化되면 “性情偏急”의 心理狀態와 “重病證”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말하여 각각 輕證 重證 險證 危證의 개념으로 體質病證을 서술하고 있다.

體質證과 體質病證의 관계를 本體論의 縱的 認識方法으로 要約한다면, 體質證의 臟腑性理를 太極으로, 內傷, 外感, 七情의 病理要因을 兩儀로 보고 이를 함께 모아 “氣裏”로 요약할 수 있고 體質病證의 현상들을 “形表”로 간주할 수 있다. (표 3-1)

이것을 다시 橫的 認識體系로 要約한다면 體質病證의 현상들을 크게 表病證과 裏病證으로 나누고 여기에 寒熱病證 心身病證 順逆病證의 개념을 포괄시켜 하나의 “形證病證”의 精神으로 要約 說明하고 이들을 다시 輕證 重證 險證 危證의 四大證으로 나누어 區分하고 있다. (표 3-2)

體質病證에서 表裏病證에 대한 調節精神은 四象人의 臟腑性理가 서로 달라 그 運營方法에서 서로 陰陽升降緩速에 대한 차이가 있게 되고, 四象人 고 유한 病證體系가 그에 따른 運營藥理가 따로 있게

되어서 東武公은 恒常 四象人의 “病證藥理”란 말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體質證과 體質病證과 病證藥理의 개념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이어지는 連續的 現象인 것이다. (표 3-3)

以上에서 體質病證의 成立過程에서도 本體論的 認識體系의 辨證精神이 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東武公은 原理的 추구 立場에서 만족하지 않고 歷代 醫家들의 醫學的 體驗속에서 歸納的으로 體質病證 藥理精神을 發掘하여 體質病證을 說明하고 있는데 이는 醫學的 原理와 體驗的 現實 사이의 거리를 좁혀 四象醫學을 보다 實證的 醫學으로 만들려는 意圖인 것이다. (표 3-4)

東武公은 1882년 46歲때에 獨行篇을 완성하였는데 獨行篇 속에서 四象人의 心慾이 처음으로 제시되고 있어 四象의 體質證이나 體質病證의 성립은 46歲以後부터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그는 少陽人 亡陰證의 體驗을 1875年(乙亥) 39歲때 처음으로 經驗하여 六味地黃湯을 썼다고 記錄하고 있는데, 이때 體驗은 體質病證이 成立되기 전에 이루어진 少陽人의 體驗이란 것을 알 수 있다. 東武公은 1894年(甲午) 58歲때부터 東醫壽世保元을 完成하고 1895年(乙未) 59歲때부터 1900年(庚子) 64歲로 돌아가실 때까지 體質病證藥理에 대한 體驗을 追加 記錄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가 얼마나 體質病證藥理의 實證的 完成을 위하여 애써왔나 알 수 있다.

(表 3-1) 體質病證의 認識體系

氣 裏		形 表
太極	兩儀	四象
體質證 〈人稟臟理·人趨心慾〉	病因 〈外感·內傷·七情〉	形證病證 〈太陽陽明之發熱形證一也而…〉 〈太陰少陰之自利形證一也而…〉

[表 3-2] 許浚의 東武의 形證病證

形證病證	許浚의 形證病證		東武의 形證病證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	太陽人
六經形證病證 (太陽形證, 陽明形證, 少陽形證, 太陰形證, 少陰形證, 厥陰形證) 雜病形證 (亂形證, 浮腫形證, 脹滿形證, 消渴形證, 極疾形證, 瘟疫形證)	表病	表(順)	鬱狂證	少陽傷風證	太陽寒厥證	解休證
		裏(逆)	亡陽證	亡陰證	肺燥寒證	
	裏病	裏(順)	太陰證	胸膈熱證	肝燥熱證	噎膈證
		裏(逆)	少陰證	陰虛午熱證	燥澀便閉證	

[表 3-3] 體質證과 體質病證 및 病證藥理

	體質證	體質病證		病證藥理	
	恒心 完實無病	恒心尤甚證 大病證	性情偏急 重病證	治療目標	治法
少陰人	不安定之心 飲食善化	咽喉證 虛汗, 泄瀉 飲食不化	喜好不定, 泄瀉不止臍下 必如冰冷	下陷된 기운을 上昇시킨다.	表病 : 升陽益氣 裏病 : 裏陰降氣
少陽人	懼心 大便善通	恐心 (健忘) 大便不通	悲哀動中, 大便不通則 胸膈必如烈火	내부의 火熱을 해소한다	表病 : 表陰降氣 裏病 : 清陽上昇
太陰人	怯心 汗液通暢	怕心 (怔忡) 陽強堅密	侈樂無厭, 痢病則小腸之 中焦空塞如霧	내부의 燥熱을 해소한다.	表病 : 肺陽上升 裏病 : 清肝燥熱
太陽人	急迫之心 小便旺多	八九日大便不通 口中多出沫	忿怒激外, 噎膈則胃脘之 上焦散豁如風	上升된 기운을 下降시킨다.	表病 : 補肝生陰 吸聚之氣를 도와준다. (解休證) 裏病 : 呼散之氣를 억제한다. (噎膈)

[表 3-4] 東醫壽世保元에 引用된 處方과 醫案 및 新定處方

東醫壽世保元에 引用된 處方과 醫案 및 新定處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張仲景 處方 : 37處方 (少陰人 23方, 少陽人 10方, 太陰人 4方)</li> <li>• 宋元明醫家 處方 : 37處方 + 12種 藥物 (少陰人 19方, 少陽人 9方, 太陰人 9方, 太陽人 藥物 12種)</li> <li>• 李濟馬 新定處方 : 67處方 (少陰人 24方, 少陽人 17方, 太陰人 24方, 太陽人 2方)</li> </ul>
東醫壽世保元에 引用된 處方 및 醫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張仲景 : 處方 37個, 醫案 66個 (少陰案 49, 少陽案 14, 太陰案 3)</li> <li>• 朱肱活人書 : 處方 5個, 醫案 12個</li> <li>• 李 (入門) : 處方 8個, 藥物 1個, 醫案 9個</li> <li>• 信 (醫鑑, 萬病回春) : 處方 11個, 藥物 1個, 醫案 8個</li> <li>• 朱震亨 : 處方 2個, 醫案 5個</li> <li>• 靈樞 : 醫案 3個, 內經 : 醫案 2個</li> <li>• 危亦林 得效方 : 處方 3個, 醫案 5個</li> <li>• 醫學綱目 (明 樓英) : 醫案 4個</li> <li>• 王好古 : 處方 1個, 醫案 4個</li> <li>• 李東垣 : 處方 2個, 醫案 2個</li> <li>• 東醫醫方類聚 : 醫案 2個</li> <li>• 王叔和 : 醫案 2個</li> <li>• 成無己 (明理論) : 醫案 2個</li> <li>• 許叔微 (本事方) : 醫案 1個</li> <li>• 孫思邈 : 處方 1個, 醫案 1個</li> <li>• 扁鵲 (難境) : 醫案 1個</li> <li>• 張鷟 : 醫案 1個</li> <li>• 和劑局方 : 處方 4個</li> <li>• 醫學正傳 (虞博) : 處方 1個</li> <li>• 杜壬 : 醫案 1個</li> <li>• 李子健 : 醫案 1個</li> <li>• 神農本草 : 10種 藥物</li> </ul>

## 2. 甲午版, 庚子版 病證論 篇名의 비교 검토

위에서도 말하였듯이 東武公은 1894年(甲午) 58歲때부터 <東醫壽世保元>을 完成하신 후에도 1895年(乙未) 59歲때부터 1900年(庚子) 64歲로 들어가실 때까지 꾸준히 患者를 치료하면서 體質病證藥理

에 대한 體驗을 追加 記錄하였다. 따라서 甲午年 당시의 病證論 篇名에 나타난 體質病證 精神과, 후에 庚子年에 改抄된 病證論 篇名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改正하게 된 背景과 李濟馬 體質病證의 精神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1) 甲午版 病證論 篇名の 의미

李濟馬가 1894년 <東醫壽世保元>을 처음 저술할 당시에는 이미 <格致叢> 獨行篇 儒略 反誠箴을 著述한 이후이다. 즉 李濟馬는 四象人의 心慾의 特徵을 파악한 상태에서 자신의 事心身物論을 중심으로 한 四象哲學의 理論과, 既存의 醫學理論, 그리고 40세이전부터 시작된 자신의 醫學 經驗을 함께 모아 새로운 醫學理論을 정립하고자 <東醫壽世保元>을 著述한 것이다.

따라서 性命論 四端論 擴充論 臟腑論에서 제시되고 있는 四象人의 心慾과 性情을 바탕으로 하여 體質證을 완성하고, 나아가 四象人의 病理의 特性까지도 一貫되게 설명할 수 있는 醫學理論을 완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도는 현재 전해지고 있는 甲午版 病證論 篇名에 잘 나타나 있다.

### 가. 甲午版 病證論 篇名の 의미

처음 저술된 <東醫壽世保元>의 內容(性命論, 四端論, 擴充論, 臟腑論, 太陽人 病證論등)을 중심으로 甲午版 病證論 篇名の 의미를 考察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特徵이 있다.

첫째, 四象人의 病證은 모두 小한 臟을 중심으로 病證論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臟의 概念은 臟腑論의 四焦 概念에 기초하고 있다. 즉 腎大脾小한 少陰人 病證의 胃는 모두 脾之黨이며, 脾大腎小한 少陰人 病證의 膀胱과 大腸은 모두 腎之黨이며, 肝大肺小한 太陰人 病證의 腦와 胃脘은 모두 肺之黨이며, 肺大肝小한 太陽人 病證의 腰脊과 小腸은 모두 肝之黨이다. 또한 太陽人은 吸聚之氣를 保命之主로하여 腰脊小腸을 本으로 하고 腦胃脘을 標로 하며, 少陽人은 陰清之氣를 保命之主로하여 膀胱大腸을 本으로 하고 胃를 標로 하며, 少陰人은 陽暖之氣를 保命之主로하여 胃를 本으로 하고 膀胱大腸을 標로 하였다. 따라서 四象人 病證論이 모두

本에 해당하는 小한 臟이 中心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四象人의 病證은 모두 外感病과 內觸病으로 二大別하였으며, 外感은 表病이고 內觸은 裏病이다.

셋째, 性情과 四象人의 病證을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性은 表氣를 傷하고 情은 裏氣를 傷하며, 性에 의한 表病보다 情에 의한 裏病을 더 重한 病으로 認識하였다. 즉 太陽人은 哀心이 深着하여 表氣를 傷하고, 怒心이 暴發하여 裏氣를 傷하는데, 表證인 解證보다 裏證인 膈病이 더 重하다고 하였다. 少陽人은 怒性이 口와 膀胱의 氣를 傷하고, 哀情은 腎과 大腸의 氣를 傷하며, 少陰人은 樂性이 目하고 胃의 氣를 傷하고, 喜情이 脾와 胃의 氣를 傷하고, 太陰人은 喜性이 耳와 腦의 氣를 傷하고 樂情은 肺와 胃脘의 氣를 傷한다고 하였다.

### 나. 性情과 表裏病證과의 關係

擴充論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哀怒喜樂의 性은 耳目鼻口가 天機를 통찰하는 聽視嗅味의 힘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木사람들이 서로 속이고, 업신여기며, 돕고, 보호하는 것을 哀怒喜樂하는 것을 말한다. 哀怒喜樂의 情은 肺脾肝腎이 人事를 행하는데 있어 他人이 나를 업신여기고, 속이고, 보호해 주고, 돕는 것을 怒哀樂喜하는 것을 말한다.

즉 天機의 特性을 띄고 있는 哀怒喜樂의 性은 나 자신이 客體的 立場에서 木사람들이 公同적(大同的)으로 갖게 되는 人間 本然의 公同된 情緒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人事의 特性을 띄고 있는 哀怒喜樂의 情은 나 자신이 他人과의 직접적인 關係 속에서 독립적(各立)으로 겪게 될 때 발현되는 人性的 特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性命論에서 耳目鼻口의 天(事)과 臆膈腹의 知(物)는 大同과 博通으로 公同된 特徵을 나타내고, 肺脾肝腎의 人(心)과 頭肩腰腎의 行(身)은 各立과

獨行으로 공통된 特徵을 나타낸다.

性情과 表裏病의 關係에서 表病은 性에 의한 것이며, 天(事)과 知(物)의 概念이며, 大同과 博通의 概念이다. 表病은 情에 의한 것이며, 人(心)과 行(身)의 概念이며 各立과 獨行의 概念이다.

따라서 性(나 자신이 직접 主體가 되기보다는 客體로서 작용하고 外部的 社會的 현상에 대해 客觀的이고도 共通的으로 나타나는 人性的 特徵)이 深着하며 表氣를 傷하여 外感病(表病)이 되고, 情(나 자신이 직접 主體의으로 작용하여 他人과의 關係에서 內部적으로 直接的이고도 개개인에 獨立的으로 나타나는 人性的 特徵)이 暴發하여 裏氣를 傷하여 內觸病(裏病)이 되며, 表病에 비해 더 重하다.

그러나 性情에 대한 表裏病證의 概念이 완전히 二分화된 것이 아니라 性이 極한 상태에서는 情을 動하여 太陽人의 忿怒滂外, 少陰人의 悲哀動中, 少陰人의 喜怒不定, 太陰人의 移樂無厭의 상황이 나타난다 하여 性情 相互間의 관련성을 더불어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李濟馬는 처음 病證論의 구성함에 있어 四象人의 心慾과 性情 및 體質證을 바탕으로 四象人의 病理的 상황을 연결하여 病證論을 저술함으로써 四象醫學 理論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즉 四象人의 性情과 病證과의 關係를 정립하고, 그에 따른 病理的 症狀를 크게 外感證(表病), 內觸病(裏病)으로 要約하였고, 또 四象人의 臟理的 特性에 따라 保命之主를 주관하는 小한 臟을 기본으로 하여 病證論을 구성하고자 하는 理論的 一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나아가 자신의 四象哲學의 思考와 四象醫學의 理論을 합치시키기 위하여 演繹的 思考가 중심이 되어 저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庚子版 病證論 篇名의 의미

甲午版의 病證論 篇名은 庚子年에 이르러 太陽人 病證論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가 바뀌게 되는데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다.

즉 1894년에 저술된 李濟馬의 初期 病證論의 精神은 1900년에 사망할 때까지 이후 약 6년간의 臨床 經驗을 통하여 변화하게 된다. 처음의 甲午版 저술 당시보다 보충된 臨床 經驗을 통하여 자신의 理論이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 후에 획득한 臨床 經驗과 醫學理論을 새로이 정립하여 醫源論, 少陰人 病證論, 少陽人 病證論, 太陰人 病證論을 새로 改抄하게 된 것이다. 이때 단순히 病證論의 내용만 改正한 것이 아니라 篇名까지 改正하게 된 바로 이 점이 李濟馬가 初期에 설정한 病證 理論이 실제 臨床에서 겪게 되는 부족함과, 四象人 體質病證의 特徵을 제시하는 데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이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臨床 經驗의 축적이 부족했던 太陽人論은 初期 理論의 배경을 가진 그대로 둔 것에 불과하다 할 수 있다. 庚子版에 改正된 病證論 篇名에 나타난 體質病證의 精神은 初期 甲午版에서 제시하고 있는 病證論 構成 理論의 기본 精神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初期 甲午版 病證論의 精神이 演繹的 思考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한다면, 改正된 病證論은 실제 臨床이 진행되면서 새로이 축적된 醫學理論과 經驗을 歸納的 思考로 정리하고, 거기에 따른 實證的 體質病證 精神으로 要約된 것이 庚子版 病證論 篇名의 의미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側面에서 볼 때 改正된 病證論의 篇名에서 全體的인 四象人 病證 理論을 끌어내려는 시도나, 四象人 病證論을 規則化된 理論의 틀 속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는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할 수 없다.

나아가 현재 제시되고 있는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의 病證論 篇名의 일정한 規則을 찾아 太陰人 病證論을 다시 그러한 規則의 틀 속으로 고쳐 보려고 하는 시도 또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太陰人의 臨床 經驗이 축적되



고 나서, 다시 이것들을 要約하는 과정에서는 太陰人 病證論 篇名이 재구성될 수 있겠으나,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의 病證 篇名의 일정規則을 근거로 太陽人 病證 篇名을 다시 理論的 틀 속으로 재구성하려는 의도는 李濟馬의 實證의이고도 歸納的인 體質病證 精神에 위배된다고 생각된다. 처음 病證論을 구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어떤 理論的 規律 속에서 太陽人 病證을 설명하려고 했다면, 李濟馬가 6년간의 세월 동안 太陽人 病證論 篇名 하나를 改正하지 못했겠는가? 이는 太陽人의 經驗 蓄積이 부족한 데 그 原因이 있으며, 여기에서도 李濟馬의 實證의 醫學 精神을 발견할 수 있다.

결국 庚子版 病證論의 篇名은 實證의 체험과 醫學理論을 歸納的 思考로 재정리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四象人 體質病證의 特性을 가장 적합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작성된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庚子版 病證論 篇名에서 四象哲學 理論을 演繹的 思考로 유추해 내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여기서 제시하고자 하는 각 體質病證의 特性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 가. 庚子版 病證論 篇名의 特徵

庚子版 四象人의 病證論 篇名은 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 少陰人胃受寒裏寒病論, 少陽人脾受寒表寒病論, 少陽人脾受熱裏熱病論, 太陰人胃脘受寒表寒病論, 太陰人肝受熱裏熱病論이다. 이것을 살펴보면 몇 가지 特徵이 발견된다.

첫째, 少陰人과 太陰人의 病證은 각 體質에 따라 小한 臟과 大한 臟에서 발현하는 病證으로 구분하였고, 少陽人의 病證은 大한 臟을 中心으로 論하고 있다.

둘째, 少陰人과 少陽人의 病證은 大한 臟이 表病證을 나타내고 小한 臟이 表病證을 나타내고 大한 臟이 裏病證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少陽人과 太陰人의 病證은 表寒病證, 裏熱病證으로 나타나는데, 少陰人의 病證은 表熱病證, 裏寒病證으로 나타난다.

넷째, 少陰人과 太陰人의 病證은 각 體質의 大한 臟은 臟(腎과 肝)으로 나타내고 小한 臟은 腑(胃와 胃脘)로 나타내고 있으며, 少陽人 病證은 大한 臟의 臟(脾)과 腑(胃)로만 나타내고 있다.

다섯째, 庚子版 病證論 篇名은 四象人의 體質마다 고유하게 나타나는 體質病證의 特徵을 歸納的으로 정리하였다.

여섯째, 예를 들어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이란 “少陰人의 腎이 熱을 받아 걸이 熱한 病을 論함”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여기서 “腎”은 病을 받는 臟腑나, 病變이 주로 발현되는 部位를 지칭하는 概念으로 李濟馬 臟腑論의 四焦의 部位를 의미한다. “受熱”은 病인의 特性을 의미하며, “表熱病”은 이로 인해 나타나는 病證의 特徵을 要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나머지 篇名도 이와 같다.

일곱째, 甲午版과 같은 外感病, 內觸病의 區分이나, 性은 表氣를 傷하고 情은 裏氣를 傷한다는 確立적 구분은 없다. 그러나 表病은 外感, 裏病은 內觸의 概念을 포함하고 있으며 表裏病證의 重, 險證에는 반드시 心理狀態의 特徵을 제시하고 있으며, 포괄적인 性情의 均衡을 강조하고 있다.

여덟째, 篇名에서 寒熱은 絶對的 概念의 寒熱이 아니라, 各各의 體質안에서 相對的 概念의 寒熱을 의미하며, 발현되는 病中의 特性을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太陰人의 表寒證과 裏熱病이 表證은 반드시 寒證이며 裏證은 반드시 熱證이라고 하는 絶對的 概念이 아니라, 太陰人의 表病은 裏病에 비해 寒의 경향이 많고, 裏病은 表病에 비해 熱의 경향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李濟馬는 太陰人에 表熱證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러한 概念에서 이해된다.

아홉째, 甲午版이 小한 臟을 中心으로 病證을 설

명하고 있는데 비해, 庚子版에서는 四象人 臟理의 大小에 따라 大함으로 인한 病證과 小함으로 인한 病證으로 구분하고자 했다. 그러나 少陽人 脾受熱 裏熱病證의 胃는 少陽人 裏熱病證이 특히 胸膈熱證으로 발현되는 特徵을 표시하기 위한 부위적 概念이며, 이러한 부분에서 庚子版 病證論 篇名이 實證의 醫學精神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열째, 각 體質 내에서 臟과 腑의 차이 즉 少陰人の 腎(腎之黨에서 腎臟)과 胃(脾之黨에서 胃腑), 少陽人の 脾와 胃, 太陰人の 胃脘과 肝의 차이는 表裏病證 중에서 李濟馬가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病證이며 더 急한 病證에 臟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즉 庚子版 病證論 篇名은 초기 醫學理論이 설정되고 난 후, 축적된 臨床經驗과 醫學理論을 재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제 나타나는 四象人 體質病證의 특성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시된 것이다. 즉 초기 醫學精神이 四象醫學과 醫學理論이 중심이 된 演繹的 方法論을 추구하고 있다면, 후기 醫學精神은 실제 臨床經驗과 醫學理論이 중심이 된 歸納的 方法論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李濟馬의 醫學精神은 가장 實際的이고 實證的인 醫學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 3. 四象病證論의 요약

#### (1) 少陰人 病證論

腎大脾小한 少陰人の 病證은 크게 腎受熱表熱病과 胃受寒裏寒病으로 대별된다. 이 중에서 腎受熱表熱病은 腎大로 인하여 腎陰이 旺盛하면 그의 腑인 大腸이 升陽作用을 하지 못하고 鬱滯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데, 이는 크게 鬱狂證과 亡陽證으로 구별되며 각각 初證, 中證, 末證으로 나누어서 설명했다.

鬱狂證의 初證은 太陽病 表證이 아직 있으면서 안절부절하는 증세이고, 中證은 陽明胃家實로 大便이 不通되는 것이며, 末證은 陽明病에 潮熱이 오르

고 헛소리를 하며 숨을 헐떡이고 눈을 똑바로 뜨는 증세를 말한다. 그리고 亡陽證의 初證은 太陽病에 發熱, 惡寒, 自汗이 있는 것이며, 中證은 陽明病에 惡寒은 없고 도리어 惡熱이 있으면서 自汗이 있는 것이고, 末證은 陽明病에 發熱이 있고 땀이 많이 나는 것을 말한다. 즉 鬱狂證은 身熱이 되되 땀이 나지 않는 것이요 亡陽證은 身熱이 있으면서 땀이 저절로 흐르는 것이니, 鬱狂證에 비해 亡陽證이 重證이요 逆證이다. 특히 少陰人の 땀을 경계한 이유는 본래 升陽之氣가 不足하고 脾胃가 虛弱하므로 陽虛하기 쉬워 少陰人이 땀을 내는 것은 陽虛가 더욱 심해진 것이고 특히 땀이 계속하여 많이 나오면 이것은 陽이 虛脫狀態로 빠진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鬱狂證, 亡陽證 모두 上昇하지 못한 陽氣를 어떻게 上昇시키느냐에 기본 治療방향이 정해지는데, 鬱狂證의 無汗은 陽氣常存한데 營衛陰陽만이 不和한 소치이니 調和營衛하면 되고, 亡陽證의 有汗은 陽氣不足으로 인한 津液外脫이므로 治本하기 위하여 陽氣上昇을 목표로 升陽益氣法을 구사한다.

반면에 少陰人 胃受寒裏寒病은 少陰人이 脾小한 특징을 지니므로 항상 脾陽이 不足하여 陰化되기 쉽고 升陽하는 기운이 不足하여 생긴 陰實之氣의 輕重에 의해 病證이 구분된다. 이는 腹痛과 泄瀉를 기본 症狀으로하여 太陰證과 少陰證으로 구분한다. 그중 太陰人은 “口中有和 無口渴 而有腹痛 自利者.”이며, 少陰證은 “口中不和 有口渴 而有腹痛 自利者.”라 정의하였다. 즉 心煩, 食慾, 口渴의 有無가 辨證上의 지표가 된다. 太陰證의 泄瀉는 大腸의 寒氣를 胃 속의 溫氣가 축출하는 泄瀉이고, 少陰證 泄瀉는 大腸의 寒氣가 胃 속의 溫氣를 펌박하는 泄瀉로, 太陰證은 順證概念이고 少陰證은 太陰證에 비해 逆證概念이고 表裏俱病이다. 이때의 治療는 鬱滯된 陰實之氣를 내려주는 것을 根本으로 삼고, 太陰病에 있어서는 溫氣가 寒氣를 밀어내는 것인즉 그 溫氣를 도와주면서 裏陰을 내려주는 方法, 다시

말해서 溫胃而降陰法을 사용하고, 少陰病에 있어서는 이미 대세가 기울어져 深部에까지 영향을 미친 상태이므로 脾氣를 도와주면서 降陰시키는 健脾而降陰法을 사용하였다.

이상에서 少陰人은 전체적으로 중심세력이 아래에 있어 陰化되기 쉬우므로 陽暖之氣가 保命之主라는 것을 바탕으로 升降概念을 운용한다. 그중 表病은 腎大함으로 인해 생긴 陰化된 기운을 어떻게 陽化시키느냐에 주안점을 두고 升陽益氣를 治法으로 하고 있으며, 裏病은 脾小로 인해 생긴 陰實之氣를 풀어주는 方法으로 裏陰降氣를 治法으로 하였다.

## (2) 少陽人 病證論

脾大腎小한 少陽人의 病證은 脾受寒表寒病과 胃受熱裏熱病으로 구분된다.

이중 脾受寒表寒病은 少陽人이 脾大하기 때문에 脾 속의 陽氣가 커서 이것으로 인해 脾속에 있는 陰氣가 疝박을 받아 下降하지 못하여 발생하는데 이 脾陰을 脾의상 表陰이라 한다. 重要病證은 鬱滯된 表陰의 정도에 따라 少陽傷風證과 亡陰證으로 구별하는데, 少陽傷風證은 少陽人의 腎局의 陰氣가 熱邪로 下降되고 脾局의 陰氣가 熱邪로 凝滯되어 腎局으로 下降하지 못하고 어깨와 등석마루 사이에 凝滯된 것으로 묘사된 病證으로 熱과 惡寒이 있으면서 脈이 浮緊하며 身痛하고 嘔이 나지 않으며 煩躁證이 있는 것인데. 여기에 口苦, 咽乾, 目眩, 耳鳴, 寒熱往來, 嘔逆 등의 증세도 이 범위에 속한다. 少陽傷風證은 수일동안 낫지 않고 시일을 끌면 表陰이 하강하지 못할 뿐 아니라 裏陽도 上昇하지 못해 結胸證이 발생한다.

亡陰證은 少陽人이 설사하는 症狀을 대표 증후로 하였는데, 이는 陰氣가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데 내려가지 못하고 반대로 上昇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증세로 身熱, 頭痛, 泄瀉의 亡陰에는 猪苓車前子湯, 荊防瀉白散을 사용하고, 身寒, 腹痛, 泄瀉의 亡陰

에는 滑石苦參湯, 荊防地黃湯을 사용한다. 이때 少陽傷風證은 順證概念이고, 亡陰證은 逆證의 概念이며, 結胸證은 表裏가 같이 不和한 病證이다.

少陽人의 胃受熱裏熱病은 淸陽이 上昇하지 못하여 發病하는데, 이 上昇하지 못한 裏陽은 耗陽이요 火氣이다. 이는 腎小함으로 인해 陰虛되기 쉽고 淸陽 곧 元氣가 頭面四肢까지 순조롭게 올라가지 못하고 熱化되어 나타나는 病證이다. 이는 胸膈熱證과 陰虛惡熱證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胸膈熱證은 裏陽이 上昇하지 못하고 鬱滯되어 熱化된 것으로 大便不通이 주요 症狀이며, 消渴病 중 上消와 中消, 盜汗, 背癰, 腦疽, 脣腫, 纏喉風, 咽喉病, 陽毒發斑, 流注丹毒, 黃疽, 耳目口鼻齒牙之病 등이 모두 火와 熱로 인한 病證이며 大便不通의 정도에 따라 輕重을 나눈다. 특히 少陽人이 며칠 동안 大便을 보지 못하면 熱毒이 심해진 것으로 裏熱便閉라 하고 地黃白虎湯으로 疏通시킨다. 少陽人에서 중간에 멎어있는 火氣를 풀어주는 것을 淸熱瀉火라 하는데 이는 곧 淸陽을 上昇시키는 方法이 되며 涼膈散火湯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陰虛午熱證은 少陽人이 腎小한 특징으로 裏陽이 상승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表陰도 下降하지 못하여 陰虛火動이 나타나는 病證으로, 陰氣가 虛하여 오후에 열이 오르고 물을 찾고 등이 시리며 구역이 나는 증세가 있고, 또한 消渴病 중 下消, 中風, 吐血 등의 증후도 이 범주에 속한다. 이때는 補陰하며 火氣를 풀어주는 滋陰降火法을 사용하여 淸陽을 上昇시킨다.

전반적으로 少陽人은 중심세력이 上部에 있어 陽化되기 쉬우므로 陰淸之氣가 保命之主라는 바탕위에 升降概念을 운용한다. 대체로 少陰人의 病證이 寒病證이라면 少陽人의 病證은 火와 熱의 病證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중에서 表病證은 脾大로 말미암아 鬱滯된 表陰을 내려주는 목적으로 表陰降氣를 治法으로 하였고, 裏病證은 腎小에서 기인한 火와 熱을 해

결하기 위해 裏陽上昇을 治療方向으로 삼았다.

### (3) 太陰人 病證論

肝大肺小한 太陰人の 病證은 크게 胃脘受寒表寒病과 肝受熱裏熱病으로 大別된다.

胃脘受寒表寒病은 太陰人이 肺小한 특징을 지니므로 그의 腑인 胃脘의 上昇하는 힘이 不足하고 肺의 呼散之氣가 不足하여 表出하는 기운이 적으므로 생기는 病證이다. 이는 크게 太陽寒厥證과 肺燥寒證으로 구분되며, 그중 太陽病傷寒에 머리가 아프고 열이나면서 허리와 골절이 쓰시고 惡寒이 있거나 땀은 나지 않고 기침하는 증세를 背頤表病이라 하고, 이는 營血不利한 까닭이니 麻黃發表湯으로 發汗시켜 呼散之氣를 도와주면 營血不利한 것이 해결된다고 보았다. 太陽寒厥證은 원래 勞心焦思하여 胃脘이 쇠약해서 表局이 허약한 틈을 타 寒邪가 침범하여 正邪 相爭하는 형세이니, 寒熱과 汗出이 교대로 나타나며 수일 동안 반복되는 증세로, 이 病證의 관리에 있어서는 반드시 發汗의 有無와 進退로 病의 輕重을 판단하여 그 輕重의 정도에 따라 熊膽散이나 寒多熱少湯 등으로 發汗을 유도하였다.

肺燥寒證이란 太陰人 특유의 呼散之氣 不足에서 오는 燥病證으로 食滯肥滿, 退却無力, 黃疸, 虛勞夢泄, 咳嗽 등의 證候로 이때는 太陰調胃湯, 調胃升清湯 등으로 發汗시키는 方法에 아울러 潤燥시키는 方法을 사용하여 燥를 해소하였다.

따라서 胃脘受寒表寒病의 治療는 發汗시켜 表寒之邪를 풀어주거나 潤燥시켜 肺의 呼散之氣를 도와주는 약물을 사용하였다.

반면에 肝受熱裏熱病은 太陰人이 肝大한 특징으로 吸聚之氣가 旺盛하여 안으로 모으는 기운이 많아 제대로 나가지는 못하고 내부에 鬱滯됨으로 인해 생기는 熱證으로, 이 病證은 肝燥熱과 燥溢便閉證으로 대별된다. 肝燥熱證은 太陰人이 侈樂無厭하고 慾火外馳하고 肝熱太盛하고 肺燥太枯하기 때문

에 發生되는 것이라 하고, 發熱을 위주로 하나 陽明經病과 陽明腑病의 증후와 傷寒陽毒이나 熱性瘟病을 포괄하며, 飲一洩二한 消渴病, 手指焦黑 瘡病, 虛勞夢泄證, 그리고 陰血耗竭로 인한 耳聾, 目暗, 脚弱, 腰痛 등의 病證이 모두 이 범주에 속하며 이 潮熱을 해소하는 方法으로 熱多寒少湯을 基本方으로 하여 葛根解肌湯, 淸肺瀉肝湯, 淸心蓮子湯 등을 사용한다.

燥溢便閉證이란 肝燥熱이 심하여 그의 腑인 小腸에 熱이 鬱結되면 大便秘結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裏熱溫病에 熱이 심한 경우나 發熱이 심하면서 몹시 추워하고 大小便이 막힌 경우나, 머리, 얼굴, 목에 熱이 나면서 빨갛게 붓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 이는 逆證概念으로 급히 葛根承氣湯이나 角大黃湯으로 通便을 유도하여 肝燥熱을 풀어준다.

이상에서 太陰人 表病證과 裏病證 모두 燥病證이라 할 수 있는데, 表病證의 燥는 太陰人이 肺小함으로 인해 呼散之氣가 不足해서 오는 것으로, 이를 肝燥熱에 비교하여 肺燥寒이라 하며, 이때의 燥는 땀을 내어 풀어준다. 裏病證의 燥는 吸聚之氣가 過多하여 안으로 너무 많이 쌓여 생긴 鬱熱로 인한 것으로 肝燥熱이라 하고, 이때의 燥는 주로 大便을 나가게 함으로써 燥가 풀어진다고 보고 있으며, 燥가 심하면 表裏病 모두에 潤血潤燥藥을 더불어 사용하기도 한다.

### (4) 太陽人 病證論

肺大肝小한 太陽人の 病證은 크게 外感腰脊病과 內觸小腸病으로 구분되어 있다.

外感腰脊病은 解衿이라 통칭되는 것으로, 이는 太陽人에 있어서 肺의 呼散之氣가 盛하고 肝의 吸聚之氣가 不足하여 上盛下虛한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肝의 부위인 腰脊이 陽性인 外邪를 받아들이기 쉬움으로 인해 腰脊部에서 病證이 발현하는 증후로, 上體는 完健하고 下體는 풀린 것 같아서 걸을

수가 없다. 즉 다리에 腫痛, 癱痺증세가 없으면서 下體의 발달이 그다지 약하지도 않으니, 이를 “弱不弱, 壯不壯, 寒不寒, 熱不熱”한 상태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治療는 깊이 슬퍼함을 경계하고 분노를 멀리하여 맑은 마음을 간직하고 안정을 되찾도록 노력하면서 五加皮壯脊湯을 써야 한다고 하였다.

內觸小腸病은 噎膈證으로 대표되는 病證이다. 肺와 肝은 氣液을 呼吸하는 門戶로 서로 번갈아가며 進退하면서 機能을 수행하고 있다. 太陽人에 있어서 肝의 腑인 小腸은 氣液의 陰涼한 氣를 吸入하는 힘이 不足하게 되고 반면, 肺의 腑인 胃脘에서 呼散하는 氣液의 陽溫한 氣는 상대적으로 盛하게 된다. 따라서 胃脘이 乾枯한 상태에서 呼散之氣가 太過한 반면 中下焦에서 吸入하는 기운이 지탱하지 못하므로 飲食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도리어 吐出하게 되어 膈證이 생기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膈이나 反胃證은 太陽人 病理 重한 증세이고 이에 대한 治療는 성내지 말고 기름진 飲食을 멀리하면서 藤植腸湯을 쓰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太陽人은 그 構造가 위로 올라가서 表出하는 기운은 많고 밑에서 받아서 비축하는 것은 적으므로 이로 인해 서 病證이 발생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위로 물리는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려 거두어 들여야 하므로, 小便이 잘 나가는 것이 건강상태의 지표가 되고, 기운이 조금이라도 위로 치우치게 되

면 口中吐沫과 같은 症狀이 나타나므로 서둘러 治療해야 한다고 하였다. 기운을 끌어내리자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꾸 화를 내면, 그렇지 않아도 기운이 올라가는데 더욱 올라갈 것이므로, 藥을 쓰기 이전에 깊이 슬퍼하거나 성내는 것을 경계하고 화내는 것을 삼가하며 기름진 飲食을 피해야 한다. 즉 太陽人의 治療는 어떠한 藥物에 의존하기보다는 평소의 心性을 잘 가다듬고 飲食을 주의하며, 그래도 병이 났을 때는 藥物로 治療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參 考 文 獻

1. 宋一炳: 알기쉬운 四象醫學, 하나미디어, 서울, 1993년 1판
2. 李濟馬: 四象醫學原論, 杏林出版, 서울, 1992
3. 金鐘元 外 2人: 四象醫學의 臟腑論에 대한 考察, 四象醫學會誌 Vol 2, No 1, 1990
4. 宋一炳: 사상인 체질증과 체질병증의 성립과정에 대한 연구, 四象醫學會誌 Vol 6, No 1, 1994
5. 金鐘元 外 2人: 李濟馬의 獨行篇에 대한 考察, 四象醫學會誌 Vol 6, No 1, 1994
6. 崔炳一 外 2人: 李濟馬의 本體觀과 그 背景에 대한 研究, 四象醫學會誌 Vol 2, No 1, 1990